

## 한진나루와 영웅바위

당진 앞바다 한진나루는 내포(內浦)의 관문이었다. 그 건너편은 내포 주민들이 서울 나들이를 할 때 지나던 평택 만호리 해안이다. 1979년 삼교천 방조제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한진나루에서 배를 타고 만호리로 건넜다. 그리고 나룻배에 때를 맞추어 운행하던 버스편으로 안중-발안-수원을 경유하는 길을 왕래했다. 화물선[짐배]의 경우, 한진나루에서 출발하여 인천항까지 왕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런데 바다 한 가운데 아스라이 솟은 형체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영웅바위이다. 평택시 포승면과 당진군 송악면 사이에 솟아있는 높이가 15m, 둘레 60m의 바위이다. 멀리서 보면, 중앙에 돛대처럼 길쭉한 바위가 솟고, 그 주변에 낮은 바위들이 울퉁불퉁 일어나 있는 형상이다.

영웅바위는 대동여지도에도 '令翁岩'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또한 여러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왜군이 아산만으로 침입하였을 때라 한다. 이 바위가 스스로 신통력을 발휘하여 마치 수군(水軍)을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변화였고, 주변의 작은 바위들도 군졸로 보였다고 한다. 이곳에 당도했던 왜군들은 자신을 향하여 돌진하는 듯한 형상에 속아 대경실색하면서 도망치고 말았다. 그 뒤 사람들이 이 바위의 공을 기려 '영웅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전설은 청일전쟁 때의 이야기로 윤색되어 전해지기도 한다. 이 바위를 멀리서 보면 그 형상이 마치 군함이 떠있는 것 같은데, (또는 큰 거인이 팔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 일본 함대가 아산만으로 진입하다가 이를 군함으로 (또는 큰 거인으로) 잘못 알고 도망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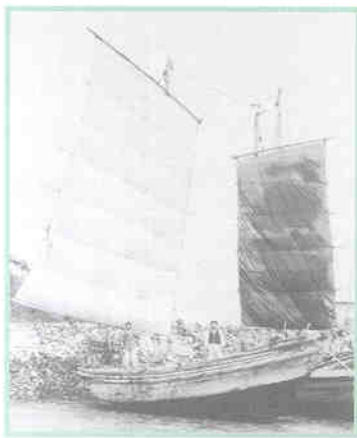
이 바위전설에 대한 유래는 매우 오래되었다. 『충청남도읍지』 제7책 「직산현읍지」와 『충청남도읍지』 제2책 「직산읍지」(1899) 등의 고적조에는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영웅바위[英雄巖]의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영웅암은 외야곶면 바다 가운데 있다. 임진년 왜선이 밤에 몰래 뱃길을 따라 이 바다에 도착했는데, 달빛 아래 바위의 모양이 갑옷을 갖추어 입은 장군이 진영을 살피는 모습과 같아서 왜병들이 크게 놀라서 배를 돌려 남쪽으로 도망하였다. 난리가 끝난 후에 (그 공을) 헤아려 영웅암이라 이름을 짓고, 옷을 입혀서 표창하는 명이 내려졌다." (英雄巖在外也串面海洋中壬辰倭船潛由海道夜抵此洋月下望見巖形削立如將軍具甲冑列陳之狀倭大驚遂回船南下勦亂後號英雄巖有着衣褒著之命).

영웅바위



令翁岩(「대동여지도」)



1950년대 한진-인천을 왕래하던 짐배

질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흘려들었고, 점차 잊혀져 갔다. 그러던 가운데 마을 주막에서 돼지를 잡는 과정에서 돼지 피가 바위에 묻었고, 옛 말을 기억했던 한 사람만이 마을을 떠나 높은 곳으로 피신을 했다. 몇 시간 후 과연 예언처럼 천둥이 치고 땅이 갈라지더니 바닷물이 차 올라 마을은 물에 잠겼고, 오직 영웅바위만이 물 밖으로 솟아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또는 토정 선생이 영웅바위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 바다로 변할 것을 미리 알고 한진에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피신하도록 간곡하게 권하였다고 한다. 결국 함께 묵었던 소금장수만이 높은 산으로 피하였다. 그런데 소금장수는 산 중턱에서 멈추었고, 선생의 다그침에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과연 예언대로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마을은 모두 물에 잠겼는데, 이상하게도 소금장수가 있는 곳까지 와서는 멈추었다. 그 곳이 한진나루이고, 영웅바위는 바다 가운데 홀로 우뚝 솟은 형상으로 남게 되었다. 이 광경을 지켜 본 선생은 소금장수의 안목에 탄식을 금치 못했다고 전한다.



아산만 결빙 모습

임금의 명에 따라 포상이 행해졌다면, 이와 관련된 의례도 있었을 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행해지지 않으며, 그러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한편 날이 갠다면 물(또는 바다) 가운데에 기차도 보이고 집도 떠오르는 등, 마치 신기루와 같은 현상들이 관측되는데, 이를 '섬논다'고 한다. 영웅바위도 섬이 될 때는 여러 형상으로 변하였으리라. 사료를 보면 아산만을 호수로 표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고, 1980년경까지도 평택 해안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얼음이 얼었다고 하는데, 아산만과 영웅바위는 뱃길로 서울 드나들었던 주민들에게는 애환이 서린 곳이다.

아산현감을 지낸 토정 이지함 (또는 어떤 노인)과 관련된 전설도 전해진다. 과거 영웅바위는 육지에 이어져 있었다 한다. 어느 날 노인이 바위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바위에 피가 묻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큰 일이 벌어

과거 한진나루가 뱃길을 통한 내포의 관문이었다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육로상의 관문이 되었다. 휴게소가 설치된 행담도가 유명하나, 전해지는 내력으로는 영웅바위의 위용이 더하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한진나루와 이웃한 부곡리를 거친다. 부곡리는 심훈 선생이 만년에 저작활동을 펼쳤던 마을이며, 실상 부곡리가 상록수 소설의 배경이었다. 바닷가 유원지로 변한 한진나루를 찾는 길에 눈을 들어 영웅바위를 보고, 나오는 길에 필경사(筆耕舍)를 들르는 여유도 그리 나쁜 것은 없을 듯하다. <충청학연구부>